



韓日文化交流을 위해 日本에 꾸민 觀自庭의 造成背景과 意匠技法

閔 庚 珪*

Min, Kyung Hyun

I. 緒 言

우리나라의 庭苑文化空間이 해외에 조성된 예는 많으나 미국독립 2백주년 기념사업으로 정부에서 LA에 우정의 종각을 세우면서 시작되었으며 1990년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꽃과 녹음박람회때 조선조의 궁궐양식의 뜰이 조성된 바 있다. 1994년 6월 4일 개원된 일본 요코하마의 관자정은 조성동기가 자매결연으로 인한 문화교류차원으로 일본측에서 조성되었으며, 그 규모나 꾸밈새로 미루어 한국정원다운 특징이 담긴 종합적인 정원공간이라 말할 수 있다.

日本 요코하마시 쓰루미구의 三池公園안에 조성된 觀自庭은 가나가와현관 京畿道와의 友好제휴를 기념하여 조성되었으며, 이는 한민족에게 고향의 정을 느끼게 하고 이 뜰을 찾는 세계인들에게 뛰어난 한국의 주거문화를 접해 볼 수 있게 하였다.

1990년 4월 가나가와현에서는 일본의 조원학회에 기본설계를 의뢰하였으며 학회에서는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총괄적인 자문역할은 본인에게 위촉되었다. 그 후 1991년 10월 일본측의 계획위원단이 한국의 정원문화유적지를 답사한 후 정원 조성부지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가나가와 현립공원인 三池公園이 한국의 산세와 식생에 가장 유사하여 조성 예정지로 선정되었으며, 한국정원의 기본구상이 일본측에서 추진되어 세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첫째안은 조선시대의 궁궐 중심의 뜰이었고,

둘째안은 마을의 공동녹지에서 개인의 뜰로 접근하는 농촌풍경을 주로 하였으며, 셋째안은 花階와 方池 중심의 양반가의 정원양식이었다.

제 1안의 경우 조선시대의 궁궐 정원만으로 한국정원다운 경관을 표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두 동의 궁궐 건물과 규모가 큰 方池를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제 2안의 경우는 마을속의 민가정원을 한정된 공간안에 조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농촌의 촌락풍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 3안인 양반가의 정원을 主題로한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일본에 조성한 한국정원의 조성목적은 조선시대의 양반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원문화의의 시원성과 주된 변천상을 재현하는데 있으며 그 꾸밈새에 있어서도 한민족의 고유사상과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 생물적인 예술공간을 조성하는데 있다.

이러한 한국측의 수정안을 토대로 하여 여러 차례의 한일간의 자문회를 거쳐 수정안이 마련되고 일본조원학회에서 추천한 戶田芳樹 풍경계획이 주체가 되고 건축분야는 본인이 추천한 세한건축사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계획 및 설계업무가 추진되어 1993년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

II. 立地與件

觀自庭이 조성된 三池公園은 일본의 요코하마

* 造景技術士. 暎園大 大學院 韓國庭苑學專功主任教授

시 쓰루미구에 위치하며 JR京浜東北線の 쓰루미역에서 北西쪽으로 2.5km거리에 있다. 한국의 정원이 조성된 三池公園은 원래 세 곳에 농업용 저수지가 있던 防空綠地로서 옛부터 유원지로 사용되었던 곳인데 1925년 공원 정비사업이 시작되어 1932년에 縣立公園으로 지정되었다. 공원의 이름에 암시되어 있듯이 上池, 中池, 下池를 중심으로 북쪽에 야구장, 정구장, 수영장과 같은 운동시설이 조성되고 남서쪽에 분수광장, 天馬광장, 어린이광장, 綠陰文庫, 공원관리수소가 있으며 공원내에 평지와 사면에 유희산책시설등이 연결된 종합공원으로 넓이는 30만m²에 이른다.

삼지공원에 조성된 관자정은 공원의 정문에서 분수광장과 천마광장을 지나 약 300m지점에 위치한 下池의 동쪽 경사지에 자리하고 있다. 정문에서의 주동선 동쪽에 위치한 관자정 주변의 지형여건은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낮아져 전정과 후원과는 약 8m의 고저차가 있으며 남쪽과 북쪽에 낮은 산으로 에워싸인 약 5천여m²의 골짜기안에 조성되었다. 북쪽산이 표고 36m로 가장 높고 남쪽이 25m, 동쪽이 28m이며 정원의 중심부에 해당된 主庭과 서쪽입구 도로면과의 낙차는 약 2m나 된다. 정원 예정지를 에워싼 北山과 南山에는 졸참나무, 서어나무, 갈참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팽나무, 뽕나무등의 활엽수림이 아늑한 야산형 의지형과 함께 한국 중부의 온대리와 비슷한 숲을 이루고 있다.

三池公園안의 한국정원인 관자정은 일본의 수도권에 위치하여 동경 시내에서 기차로 약 1시간 10분대에 갈 수 있는 교통상의 요지이자 연중 24시간 개방된 대공원안에 자리하고 있어, 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Ⅲ. 基本構想

본 계획의 목표는 조선시대의 민가를 대상으로 그 당시의 양반가의 정원을 조성하고 나아가 조선시대 이전 한국정원의 시원적인 양식과 주된 변천상을 재현하는데 있었다. 이와같이 한

시대의 민가정원을 주공간으로 사아 그 주변공간에 정원경관의 역사성을 재현하고 동시에 촌락속의 한 민가로 이어져가는 듯한 농촌의 풍경 조성 등 세가지 계획을 목표를 세워 일본측에 제시하였다.

관자정 조성 계획상의 기본계획은 가나가와현에서 일본조원학회로 위탁되고 가와하라(河原武敏)교수(東京農業大學)의 8명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1991년 10월 한국을 방문, 본인과 함께 각지의 민가정원을 위시하여 궁원과 사원등을 답사한 후, 동년 12월 일본측에서 세가지 구상안이 제시되다. 그 중 1안은 主庭의 궁원을 상징한 것으로 두 동의 건물 주변에 花階와 方池圓島를 조성하는 안이었다. 2안은 마을입구의 정자에서 개천을 따라 민가에 이르는 한국의 촌락풍경을 표현한 것으로, 아산군 설악면 외암리의 민속마을을 비슷한 모델로 삼은듯 하며, 3안은 양반가의 산장형 정원으로 전남 담양의 소쇄원과 비슷한 꾸밈새였다.

이들 계획안은 모두 부지여건이나 예산 사정상 시행불가능할 뿐 아니라, 본인이 제시한 한국정원의 표준적인 유형상의 특성을 살린 계획 목표를 이루는 데도 문제점이 많았다.

1992년 봄, 일본측에서 3.1안이 제시되어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3.2안이 작성되고 3.2안을 기본안으로 삼아 세부적인 수정을 가하여 1993년 3월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3.2안의 주된 수정 내용은 主軸의 개념을 살려 前苑쪽에 마을앞동산에서 볼 수 있는 장승, 솟대, 성황당과 같은 마을 공동의 휴식 및 제천 의식의 광장을 꾸미고, 後苑부에 상고시대의 巨石文化를 재현하여 동양문화의 시원성을 알 수 있게 하는 등 초기에 제시한 세가지 계획목표를 예산범위 안에서 수용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주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정 안의 주건물인 별당의 형태가 一자 집(45평)으로 계획된 것을 ㄱ자집(31평)으로 하되 누마루를 붙여 건물 내부에서의 조망효과를 높이고, 건물 내부공간에서의 점층적인 위계성과 건물과 뜰 사이의 接景美를 추구하여, 한

국적인 건축미를 살리면서 건축경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둘째, 일본측의 제 3안에서 부지의 경사면의 조정을 위해 前庭과 主庭 등 두곳에 강한 직선형의 계단을 계획하였으나, 이를 정원의 입구인 前苑쪽으로 유치하고, 그 형태를 《형으로 하므로서 시각적인 강직성을 해소하면서 주정을 동일 수평상에 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前庭(△, 人, 中庸)과 主庭(□, 地, 陰)과 後苑(○, 天, 陽)이 三才의 균형을 이루게 하였다.

셋째, 뜰로 에워싼 담장은 성곽의 효시인 磐境石에서 石城→石壇→土壇→土+石壇→화초담으로 이어지게 하여 담장의 변천상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넷째, 主庭의 대문쪽에 이어진 담장과 별당 사이에 四友壇을 조성하여 화계와 함께 조선시대 민가정원의 옥외경관 문화의 효시인 巨石文化를 재현한 후원공간에 神苑이 개방된 상태로 계획되었던 것을 主庭에서 후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게 하므로써 신원의 존엄성을 살리고, 동시에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夫池가 있는 축대정자의 위치를 남쪽 경사면으로 옮겨 조망성을 높였다.

여섯째, 주건물인 별당 전방의 南山의 숲 사이에 한국의 대표적인 석등을 배치하여 멀리 사원이 보이는 듯한 한국적인 정경을 조성하여 전원문화 박물관과 같은 다양한 연출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다.

IV. 思想的 背景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공간의 모든 물체와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 코를 통하여 인지되는 향기에 이르기까지 근원없이 생겨나가거나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인간에 의해 꾸며지고 오랜 역사속에 축적되어 온 정원문화의 결정체이자 땅을 모체로하여 이루어 놓은 생물적인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그 입지환경과 함께 사상적인 배경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에 조성한 관자정의 경우에도 입지면에서

지형과 식생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곳을 골랐으며, 정원의 소재와 꾸밈새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思想性에서 유래된 상징성을 최대한 응용하므로서 중국이나 일본 정원과 다른 한국적인 특징을 살리도록 하였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우리나라의 자연경관에서 유래된 한민족의 고유사상 중 관자정 구성에 응용된 것으로는 자연숭배사상, 초석사상, 음양사상, 삼재사상, 풍수사상, 신선사상 등을 들 수 있다.

정원공간의 가름에 있어서 음양과 삼재사상을 응용하여 主庭을 陰性化(地, □, 二)하고 머리에 해당되는 後苑을 陽性化(天, ○, 一)하였으며 前庭은 中性化(人, △, 三)하여 전체공간의 유기적인 三次元의 균형이 유지되게 하였다. 天(○), 地(□), 人(△)으로 가름된 세 공간의 연결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東高南低形의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東西軸을 主軸으로 삼아 사람과 물의 주된 通路로 활용케 하고, 自然상태의 前苑에서 半人工的인 前庭을 거쳐 人工的인 主庭에 이르게하고 다시 半人工的인 後庭에서 후원의 自然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빛과 물과 바람의 환경과학인 풍수사상에 알맞게 住居空間과 庭苑空間으로 땅가름하고, 水景조성에 있어서도 지세와 방아에 따라 흐르고 고이며 떨어지는 다양한 수경이 가장 쾌적한 상태에서 연출되게 하였으며 전정의 북쪽공지를 낮게 조산하여 풍수를 아늑하게 확보하였다.

끝으로 신선사상의 응용에 있어서는 전망이 좋은 후원의 경사면에 하늘을 받드는 매개체인 제단석 중심의 神苑을 꾸미고, 산록변에 폭포와 天地가에 축대정자를 세워 풍류적인 仙의 공간을 조성하고 뜰 주위의 숲사이에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인동꽃을 심어 무릉도원속에서 五感を 통해 四次元의 신비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V. 造苑原理

서구의 양식주의적인 정형식정원이나 같은 동

양권에서의 중국과 일본정원에서와 같은 시각적인 디자인 위주의 정원에서는 조형적인 일반원리가 주로 응용되고 있으나 생물적인 예술공간인 한국정원에서는 우주의 기본섭리와 원리가 주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정원경관의 감상방법에 있어서도 외국의 시각위주의 가상법과 달리 五感を 통해 마음속에 영성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땅에 조성된 관자정의 경우에 일반적인 조형원리 보다도 우주의 섭리가 담긴 생태적원리를 주로하고 일반 조형원리 중 漸層, 比例, 對比, 對稱, 均衡, 調和, 統一性 등의 원리를 입지풍토와 한국인의 자연관에 맞게 재조명하여 응용하였다.

1. 生態的 原理

인간을 위시한 생물사회는 다층구조속에 공존하면서 불가분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정확하게 限定할 수 있는 패턴의 관계가 아니라 流動的인 것으로 時와 空에 따라 변하는 準平衡상태를 유지하면서 消長되어왔다. 이같은 생물계의 유기체현상의 응용은 최근 공업디자인은 물론 조각 미술분야에 있어서 生物學的藝術論이 대두되어 붐을 이루고 있으며, 거대한 점 보여객기와 지하 1천m를 뚫을 수 있는 굴삭기의 개발도 자연계에서 관찰된 他力の 원리에서 응용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건축및 조경분야에 있어서 19세기 영국의 건축가 R.Blomfield에 의해 건축을 중심으로한 자연 개조론이 파급되어 서구풍이 정형식정원이 보급되어 왔었으나 도시공간의 팽창과 과밀화로 각종 공해가 발생되고, 人間性的 상실로 인해 사회범죄가 증가되면서 自然과 인간이 共生할 수 있는 生物學的인 예술공간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자연풍경식 정원양식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정원의 꾸밈새는 중국이나 일본정원과는 달리 우주의 섭리를 바탕으로 자연경관을 原景으로 삼은 有機的인 小宇宙이며, 그 특징은 우주공간의 섭리와 생물사회의 생태적인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생물학적 예술공간으로 평가되

고 있다. 옛들의 경관조성시 응용된 주된 생태적원리로 多者間的 共生, 음양의 균형유지, 主와 從의 위계성, 自力과 他力の 平衡性, 分과 聚의 調和, 氣勢의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1) 多者間的 共生

두개의 점이 이어져 線이 되고 세개의 점이 모아져 面을 이루고 三次元의 공간을 이루어 만물이 형성되고 있듯이 우주공간내의 모든 물체는 홀로 생성되거나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하늘과 땅사이에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조정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인간도 생물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자연과 더불어 살다간 한국인의 자연관에 잘 나타나있다. 따라서 뜰을 꾸미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연속에 살며서 파고들어 우주 만물과 共存할 수 있는 유기적인 옥외공간을 꾸미는데 있다.

(2) 陰陽의 均衡維持

垂直과 水平, 高와 低, 剛과 柔, 明과 暗, 凸, 凹, 흙과 물, 生과 死에서와 같은 음적요소의 양적요소간의 균형유지는 정원 경관 구성상 가장 중요한 원리의 하나로서 관자정의 지붕에 띄운 기와에서, 높이 쌓아올린 돌탑이나 담장은 물론 뜰안의 造山, 水景, 岩景, 配植 등의 세부기법에서도 널리 응용되어 있다.

(3) 主와 從의 位階性

땅에 자생하는 식물의 군락이나 하늘을 나는 기러기때도 위계성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있듯이, 관자정의 뜰안에서도 정원 건축물의 주종성이 지붕과 마루의 높낮이에 따라 指標되어 있으며, 석등의 경우에도 외형적인 높이와 크기는 물론 내면적인 虛와 實의 대비에서 주종관계가 상징되어 있다. 뜰에 깔린 돌판에서도 그 크기에 따라 주종이 구분되고 樹石된 岩景에서도 정원석의 크기, 문양, 색상, 위치에 따라 주종관계가 자연스럽게 풍기게 되어 공간상의 질서가 정연해 보일 뿐 아니라 담장의 점층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울동미에서도 주종의 위계성을 느낄

수 있다. 이같은 정원경관 구성상의 主從性은 시각적인 형태와 색상은 물론 소리, 향, 맛, 질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

(4) 自力과 他力の 平衡性

우주공간안에 자생하는 생물이나 바위와 물, 공기 등 모든 물체는 자력과 타력에 의해 평형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때 자력과 타력의 비율은 자력이 강한 경우와 타력이 강한 경우가 있는데 생물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강한 타력에 의해 평형이 유지된 예가 많이 있다. 그 좋은 예로 박이나 호박덩굴은 무거운 열매가 나선형의 가느다란 氣根에 의해 매달려 있으며, 종피가 두터운 잣나무 종자의 경우 물에 의해 胚乳에 저장된 단백질이 여러가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胚가 흡수하게 되므로써 종피를 뚫고 땅속으로 뿌리를 내려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자정의 水景에서도 지형의 상태에 따라 물이 흐르고 고이며 떨어지는 다양한 수경 외에도 고이는 水面에는 빛과 바람 등의 타력에 의해 虛相과 實相이 交叉되는 靜中動의 신비경이 연출되고, 기온의 변화에 따라 안개와 같은 氣體, 雪花와 고드름과 같은 固體로의 변화상이 연출되기도 한다. 뒷뜰에 심는 인동꽃과 더덕꽃의 향기와 함께 처마끝에 매달린 풍경은 바람에 의해 향과 소리가 집안으로 전파되어 한국적인 정원의 향취를 느끼게 된다.

(5) 分과 聚, 虛와 實의 調和

자연계에서의 물의 순환과정은 물론, 한송이 꽃에서도 分과 聚의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관자정의 경우에는 뜰의 입체적인 가름이나 에워싸임에 의해 다양한 기능의 정원경관이 연출되고, 땅을 평면적으로 덮는 과정에서 分과 聚의 원리가 응용되고 있다. 세부적인 수경의 예를 하나 든다면, 觀自亭 앞의 半月池는 몇 개의 水中石에 의해 수면이 가름되어 실경보다 넓게 보일 뿐 아니라, 이같은 水中島가 호안면의 정원석과 연결되어 입체적인 深景美가 연출되기

도 한다.

(6) 氣勢의 調整

뜰안의 식물은 빛과 물의 光合成에 의해 成長하여 식물마다 다른 형상과 기상을 나타내며, 무생물체인 정원석도 사람이나 식물처럼 그 형상에 따라 上, 中, 下, 前, 後面으로 구분되고, 표면의 무늬가 石脈에 따라 강한 기세를 풍긴다. 하늘높이 떠 있는 해는 양성의 天氣로서 확산과 遠心力을 상징하듯이, 사상은 인간들의 智氣로서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 태어난 한민족은 일찌기 음양 및 삼재사상과 풍수사상을 낳아 巨石文化를 남길 수 있었다. 관자정의 경우에도 주소재로 쓰인 돌, 물, 식물의 복합적인 전원경관이 주거공간인 건물과의 음양적인 기세의 흐름이 조정되고 다시 이어져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게 꾸며져 있다.

2. 造形的 原理

조각, 미술, 건축 등 조형예술 분야는 물론, 서구의 정형식 조경에서도 시각위주의 조형원리가 주로 응용되어 왔으며, 동양정원에 있어서도 중국이나 일본정원에서는 디자인적인 조형원리가 일반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한국의 관자정에 있어서는 생태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세부적인 설계에서 조형적 원리가 일부 활용되었는데, 그 주된것은 다음과 같다.

(1) 漸 層

관자정의 부지여건이 동에서 서로 내리 뻗는 경사지로 약 2m의 낙차가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主庭공간의 아늑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경사면의 계단처리를 前庭과 前苑에 조성하여 정원 입구에서의 점층적인 위계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主庭을 에워싸는 담장 처리에 있어서도 지형상의 변화와 정원내부에서의 조망성을 고려하여 점층적으로 낮아지게 조절하였으며, 정원

수의 배식과 수석에서도 점층미를 살릴수 있도록 높이가 다른 소재를 혼용하였다.

(2) 比例

절체 부지의 가름에 있어서 天에 해당하는 후원과 地에 해당되는 主庭, 그리고 人에 해당된 前庭과 前苑의 면적비를 개략 2:5:3의 비례로 땅가름 하고, 관자정 전체의 공간상의 기준척도를 人門의 1間을 기준으로 삼아 후문은 정문의 1/3이내의 크기로 조정하였으며, 前庭에 조성한 方池의 규모를 6×8m로 하여 황금비례에 맞추었다. 그밖에 정원 시설물의 입체적인 꾸밈새 중 담장의 높이는 1.65m를 기준삼아 정원내의 사람이 보이지 않게 아늑하게 에워쌓되, 외부에서 건물과 정자의 1/3 이상이 보이도록 조절하였다. 또한 花階 앞의 경석이나 석지 등의 규모도 선 자세에서 10~15度の 視線이 유지되게 2m 이하의 높이로 하였으며, 담장밖 숲속으로 조망되는 석등은 4.2m 높이로 하여 25度 내외의 視線에서 仰視할 수 있게 배치 하므로써 멀리에서 사원 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시각적인 비례감도 함께 고려하였다.

(3) 對比

한국의 옛뜰의 꾸밈새에서 부분적으로 강한 대비의 양극현상도 찾아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융합되어 대비속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에 조성한 관자정의 경우, 直과 曲의 대비현상은 건물의 기단이나 담장과 못의 형상과 꾸밈새 외에 소나무와 단풍나무에서와 같은 性狀대비와 紅梅 白梅와 같은 색상대비에서도 시도되고 있다. 담장의 경우에도 돌담, 흙담, 흙+돌담, 벽돌담 등 구성소재의 변화로 리듬감을 살리도록 하였다. 전정의 방지의 경우에도 강한 직선으로 틀이 짜여져 보이거나 내부의 圓島와 호안부의 수양버들의 울동미로 부드러운 情感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4) 對稱

한국의 옛뜰에서는 건물의 기단면과 뜰의 부대시설에서 정연한 대칭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대칭속의 비대칭이 주로 활용되어 왔는데, 관자정에서도 같은 크기의 매화가 대문 옆에 동서 대칭으로 배식되어 있으나 봄철에 꽃이 피게 되면 東紅 西白의 개화 현상이 나타나 계절적인 색의 비대칭을 이루게 된다.

花階앞 石造物의 배치에 있어서도 같은 높이의 石池가 대칭으로 놓여 있으나 동쪽에는 낮의 햇빛을 받기 위한 연꽃무늬형이고, 서쪽에는 밤의 달빛을 받기 위해 네모꼴을 함월지가 놓여져 각기 다른 음양성을 상징하고 있다.

(5) 均 衡

정원경관에서의 균형은 쓰이는 소재와 재료의 형, 색, 향기, 질감은 물론 자연계의 모든 소리 등이 그 대상이 된다.

옛뜰의 꾸밈새를 보면 비대칭적인 균형이 주로 쓰여 왔는데, 정원수의 경우에도 서구의 대칭적인 정형수와 달리 起, 承, 轉, 結이 뚜렷한 曲幹形의 수목이 주로 쓰이고 있다. 관자정의 경우 주수종으로 쓰인 소나무, 매화, 청단풍나무가 모두 자연스러운 곡간형으로 이들의 配植은 不等邊三角形의 비대칭적인 균형이 유지되게 하고, 앞쪽으로 줄기가 튀어나온 나무를 심어 深景美가 돋보이게 하였다.

계류가에 심은 정원석의 경우에도 같은 형상의 두 돌 사이에 크기를 달리하고 돌에 나타난 기세를 맞추어 主, 從石 사이에 역학상의 균형이 맞게 받음형(受形)으로 수석하였다. 水景에서도 반월지에 심은 乳葉植物의 配植에 있어서 동쪽에는 양성인 분홍꽃의 수련을, 서쪽에서 음성인 흰색꽃의 수련을 심어 음양의 생태적인 균형이 유지되게 하였다.

또한 前庭의 陰陽石의 配置도 사상적인 균형 유지의 상징적 표현이며, 전정 공간의 회화나무 세그루의 식재도 풍수적인 氣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통 배식기법의 하나이다.

(6) 調 和

한국정원의 특징 중 조화성은 매우 중요한 원리로서 정원에 쓰인 소재에 있어서도 식물의 경우 활엽수가 80%를 점하고 그 형상이나 질감이 비슷한 유사종을 선택 하였으며 정원석의 회백색의 돌만을 골라 전체적으로 조화되도록 하였다. 또한 뜰에 깔아놓은 모래도 우리나라와 색감이 비슷한 황배색 모래를 일본 큐슈지방에 구해 사용하여 물건과 정자, 기타 정원 시설물과도 잘 조화시켜 한국정원의 情感을 뜰에서 느낄 수 있게 하였다.

(7) 統一性

뜰에서의 統一性이란 정원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 하나의 완성체를 이루는 것을 뜻한다. 관자정의 경우에는 주거건물이나 정자도 한국적인 양식을 택하고, 건물과 뜰 사이의 편액, 주련, 풍경등 接景物도 모두 우리나라에서 제작하여 옮겨 설치하였기 때문에 한국적인 경관상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었다.

主庭의 남서쪽 모서리에 조성한 龜形石山의 거북머리는 기세가 뛰어난 높이 1.1m 가량의 큰 돌로서 그 좌향이 한국을 향해 있어 7세기에 일본의 아스카시대에 백제인들이 꾸민 정원내의 주경석이 서쪽을 향하게 하여 향수를 달래던 역사성을 재현하였다.

관자정의 입구인 전정의 경사면에는 흰철쭉을 군식하고, 무궁화를 상목으로 심어 한국성을 상징화 하였으며, 후원의 제단석 옆에 神木인 사스레피나무를 시고, 앞 공간에 선돌 두개를 세운 거석문화 공간에서도 한민족의 강인성을 찾아 볼 수 있다.

IV. 땅가름(地割)

땅을 가름하기에 앞서 주어진 공간의 입지여건을 종합하여 정원공간의 기본축을 설정한 후, 수정된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하여 정원공간을

가름하였다.

1. 基本軸의 設定

선정된 부지의 입지여건과 주변여건, 개발목적,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정원공간의 기본축을 설정하고 정원공간의 기준축도는 대분의 1칸을 기준으로 삼았다. 동쪽 언덕이 높고 서쪽으로 경사진 지형여건과, 서쪽에 위치한 기존의 공원시설인 下池사이에 주동선이 나 있는 상태에서 관자정의 진입로를 기존의 도로와 연결하고 전체정원공간 상의 주축선을 동서축으로 설정하였으며 집터를 북쪽산록에 잡아 남쪽 뜰을 바라도 보게 한 남북간의 부축선을 설정하는 전제하에서 일본조원학회에서 추천한 계획팀에게 기본구상안을 작성하게 하였다.

2. 庭苑空間의 가름

觀自庭의 공간구성은 담장으로 에워싸인 內苑과 外苑으로 구분되고, 주택의 정원공간인 內苑은 前庭과 主庭, 後庭으로 가름되고, 外苑은 동쪽의 神苑이 지라한 後苑과 서쪽의 기존 도로에 접한 前苑과 下池, 그리고 관자정 남쪽과 북쪽 언덕의 자연 수림등이 해당된다.

동서간의 主軸線을 대상으로 정원공간을 가름하면, 前苑과 前庭, 主庭과 後庭, 後苑으로 이어지는 세공간으로 구분되는데, 展庭과 主庭과 後苑의 면적비가 3:5:2의 비율이며, 이들 주요 공간의 상징적인 성격을 도면에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관자정의 공간구성은 天·地人 三才간의 균형유지와 主從의 위계성에 따라 엄연하게 가름되고 다시 전체로 연결되어 정원의 명칭에 함축되어 있듯이 자연속에서 배우면서 슬기롭게 공생하려는 한민족 고유의 생물적인 예술공간으로서의 특징이 반영 되었다.

VII. 景觀의 꾸밈새

정원공간의 경관구성 요소는 입지여건, 조성

목적, 기능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한국 정원의 주된 구성요소는 숲과 돌고 물의 복합적인 산수경관이 주가되고, 건축물과 壇, 臺, 담장과 같은 축조물 외에도 건물과 뜰사이에 다양한 接景物과 石造物로 꾸며져 있다.

관자정의 경우 조선시대 양반가의 민가정원을 주경관으로 하고, 촌락의 風景과 고대 정원문화의 변천상을 동시에 조성하여야 하는 박물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먼저 전체공간 에워싸임의 꾸밈새와 감상방법에 있어서 온갖 향기와 소리 등 오감을 통해 감상하는 대경의 설정과 정원경관 구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1. 庭苑空間의 에워싸임

정원공간 에워싸임의 효과는 외부공간의 경계를 나타내고 채광, 통풍은 물론 시각적인 차폐와 방음, 방진, 방풍 차광등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 관자정의 에워싸임 시점은 선사시대의 고인돌 사이의 경계석으로 쓰인 磐境石에서 응용되었는데, 후원의 후문을 기점으로 7개의 돌을 점상으로 열식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성곽형의 큰돌담에서 관자정 뒷쪽의 낮은 돌담으로 이어지게 하면서 지형에 맞춘 점층적인 변화와 함께 육각정이 자리한 남쪽 모서리에서는 60cm 뒷쪽으로 낮은 흙담이 축조되고, 남서쪽 모서리에서 흙돌담이 대문을 거쳐 북쪽모서리로 이어진다. 통우재 뒷뜰의 화계쪽에서 後門까지는 벽돌로 된 화초담으로 연결되어 선사시대에서 조선조시대까지 담장의 변천사를 알 수 있게 하였다.

담장의 높이는 북쪽의 하초담과 정문인 서쪽의 흙돌담이 가장 높아 165cm로서 담장안의 사람은 밖에서 보이지 않으나 통우재와 관자정의 지붕이 밖에서 솟아 보일 수 있게 조절하였으며 남쪽의 흙담은 150cm로 낮게하여 채광과 조망성을 살리도록 하였다.

2. 庭苑景觀의 鑑賞

관자정의 감상은 건물 내부에서의 정적인 좌

관식과 뜰안을 거닐면서 이루어지는 동적인 회유식을 겸하고 있는데, 시각위주가 아니라 청각, 후각, 미각, 촉각등 오감을 통해 마음속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정원경관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상하기에 알맞는 관망장소를 미리 설정하였다. 관자정 전체 공간의 주 감상 지점은 통우재의 누마루가 되고, 관망 대상은 半月池와 함께 주변의 산수경이 南山의 자연림으로 이어진다. 두번째 감상점은 觀自亭에서 북쪽으로 바라다 보인 통우재의 건물 및 접경미와 후정의 花階와 장독대 등이 對景이 된다. 세번째 가장 높은 동쪽 후원에서 서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경관으로 쑥대정자와 천지는 물론 주정의 관자종과 통우재와 대문까지의 동서축의 정원경관이 대경이 되고, 네번째 감상점은 대문을 통해서 동쪽으로 主庭-後門-後苑으로 이어져 보이는 西東간의 정원경관이 대경이 된다.

이상 첫번째와 세번째 對景은 눈높이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俯視景이고, 두번째와 네번째가 平視와 仰視景에 속한다.

3. 庭苑景觀의 構成

(1) 內苑圍域

1) 前庭

주택공간으로의 진입 및 매개공간인 前庭에는 方池圓島가 主景을 이루고, 매개공간인 앞마당 북쪽에 관리상의 비상 도로가 따로 조성되어 있는데, 앞마당과 비상도로 사이에는 낮은 담장으로 가려져 있으며, 전정을 마사토로 덮어 한국 농촌의 포근한 분위기가 조성되게 하였다.

대문앞 전정에는 한옥형의 안내판이 설치되고, 方池와 담장 사이에 三才사상을 상징한 庭苑名碑가 서 있다. 전정의 배식은 계단 좌우의 경사면에 흰철쭉을 군식하여 백의민족의 기상을 상징화하고, 회화나무 세그루를 심어 一顧三極의 夫懷에서 연유된 번영의 기세를 살리면서 좌우에 음양석을 세워음양의 조화를 함께 시도하였다.

2) 主庭

三間의 대문을 들어서면 主庭이 전개되고, 주 건물인 通友齋 뒷 경사면의 後庭에는 3단의 花階와 장독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우재 전방인 남쪽 뜰에 정원의 중심 경관이 조성되어 있다. 후원에서 흘러든 물이 고여서 반월지를 이루고, 서쪽으로 흐르는 계류에는 세곳에 낮은 소폭포를 조성하여 시원스러운 물소리를 들을 수 있게 꾸며졌으며, 주정의 남쪽 계류가에 6개의 돌을 심어 꾸민 龜形石山(길이 7m, 폭 4m, 높이 0.6m)이 낮게 솟아 보인다.

주정의 수경과 남쪽 담장사이에 五岳形의 造山이 이어지고, 정원석으로 암경을 조성하여 반월지 가에 육각정자를 세웠다. 정자앞에는 자연형의 수조와 석등이 가설되어 있으며, 류를 건너는 통돌 다리가 자연석으로 된 두 개의 난간석이 세워져 있다.

主庭의 정원식물은 조산면의 소나무를 주수종으로 하여 단풍나무, 매화나무, 느릅나무, 감나무, 모과나무를 심고, 대문에 연한 담장에 조성한 四友壇에는 오죽, 매화, 국화, 춘란을 심었으며, 통우재 서쪽 추녀결에 석류나무, 동쪽 누마루의 추녀가에 파초를 심어 조선시대 양반가의 정취를 살리도록 하였다.

3) 後庭

후정에 꾸민 단의 화계에는 2단면에 煙家와 1단에 函月池와 연꽃형 石池가 놓이고, 그 밑 뜰 바닥에 네모꼴의 水槽를 중심으로 하여, 좌측에 모자상의 원승이 돌과 우측의 폭포형의 景石이 석함안에 심어져 배치되어 있다. 환계면에는 도라지, 작약, 모란, 철쭉, 해당화, 수국, 홍도, 황매, 앵두, 영산홍, 화살나무 등 화목성 관목류와 오죽을 심었으며, 동쪽 담장가에 3×7m 규모의 장독대를 설치하였다.

(2) 外苑圈域

1) 前苑

마을 입구의 휴식공간이 번영과 안녕을 기원

하는 부락공동의 祭天信仰의 동산으로 성황당, 목장승 1쌍, 솟대 1쌍, 해태석 1쌍이 설치되고 오른쪽 언덕에 국화인 무궁화나무와 정자목으로서의 회화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정원의 성격은 공원내의 下池로 이어지는 공동의 녹지공간이다.

2) 後苑

후원에는 주경관인 掘石型의 제단석(길이 2.2m, 폭 2.1m, 두께 0.6m, 무게 5톤)을 중심으로 전방에 立石型의 선돌(높이 2.1m, 1.1m, 0.9m) 한쌍을 좌우에 세워 선사 시대의 巨石중심의 神苑을 조성하고, 主庭과 후원과의 경계선에 支石型의 고인돌과 성곽의 효시인 磐境石 7개가 열상으로 배치되어 주정과 기름되어져 있다.

후원 동북쪽 경사면에 조성된 井자형 우물에서 솟은 물이 용상곡수거를 거쳐 3단의 폭포를 이루고 天池에 고인물이 넘쳐 主庭의 반월지로 흘러들게 꾸며져 있다.

후원인 神苑에는 제단석 우측에 神木인 사스레피나무를 심고 주변에 느티나무, 때죽나무, 이팝나무, 자작나무, 단풍나무, 노각나무 등의 고산성 활엽교목 외에 싸리, 좁작살나무 등의 낙엽관목과 인동덩굴, 능소화 등의 덩굴식물을 기존의 큰나무 줄기에 붙여 심었다.

3) 南山

앞산인 남산의 수림속에 玄化寺 석등과 쌍사자 석등 한쌍 등 세개를 통우재의 누마루에서 조망할 수 있는 副軸線上에 배치하여 한국의 사원을 연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주변 숲의 공지에 단풍나무를 혼식하여 정원내에 심은 단풍나무와 자연스럽게 이어져 보이도록 하였다.

4) 北山

통우재 뒷산과 후정사이의 직선형 담장선의 장식성을 해소하고 담장내의 식물경관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계상단부의 오죽과 화살나무를 뒷사의 경사면으로 이어져 보이게 散植 하

였으며 서북쪽 비상로변의 환경사면에는 복숭아 나무, 살구나무, 배롱나무 등을 심어 정원내의 화목류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완충녹지를 조성하였다.

VIII. 意匠技法

觀自庭의 꾸밈새는 한민족의 고유사상인 음양 및 삼재사상과 풍수 및 신선사상을 발양으로 하여 主의 從, 分과 聚, 虛와 實, 自力과 他力, 氣勢의 조정 등의 생태적인 원리를 활용하여 五感を 통해 마음 속으로 감상하면서 共生할 수 있는 생물적 예술공간을 목표로 하여 조성되었으며, 관자정 경관조성기법상의 주된 것으로 造山, 岩景 및 配植景 등을 들 수 있다.

(1) 造山

정원 주변이 낮은 구릉으로 에워싸여져 있어 造山의 필요성은 없으나 뜰안이 수평으로 확산된 단조로움을 덜고 담장밖 경사면을 뜰안으로 연결함으로써 주변의 자연 지세와의 조화성을 높이는 동시에 뜰의 岩景을 돋보이게 하려는 여러가지 목적에서 낮은 산이 조산되었다.

후원의 경사면에 三山을 꾸며 고대의 三神山을 상징하여 후원에 꾸민 신원의 위계성과 전망성을 살리도록 하였다. 원래 후원의 가장 높은 경사지였기 때문에 기존의 지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앞쪽 경사면에 '두봉우리의 낮은산을 조성하여 三山을 이루게 하였다.

主庭공간에서는 통우재에서 바라도 보이는 남쪽 半月池와 담장사이에 五岳을 조산하여 정원석을 심을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하면서 주정내부의 지반상의 변화미를 살렸다. 五岳중 가장 높은 主山의 위치는 흙담에서 돌과 흙이 섞인 흙담담과의 교차지점으로 통우재에서 가장 멀리 보이는 측방에 0.9m 높이로 꾸미고 우측에 0.5m높이의 산이 이어져 보이게 하였으며 좌측에는 0.3~0.7m 높이의 삼산을 주산높이의 3배거리로 品자형으로 꾸며 주산과 자연스럽게 이어

져 보이게 하였다.

이밖에 전원의 우측계단 전면이 있는 70여m²의 평지형의 공지를 0.3~0.5m 높이로 조산하여 北山의 흐름이 이어져 아늑한 분위기가 유지되게 지형을 조절하였다.

(2) 岩景

정원의 암경은 산수경관 조성상의 기본골격으로 정원석을 땅에 심어 바위산의 이미지를 상징한 것으로 선사시대의 巨石文化에서 유래되었다. 6천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민족의 수석문화는 수직적인 직석의 개념인 중국의 석가산기법과 달리 평면확산적인 자연스러운 散植과 群植기법이 주로 쓰였다.

관자정의 주된 암경은 후원의 선돌과 화계앞의 景石, 그리고 半月池안의 庭湖石에서와 같은 單植처리외에도 主庭의 남쪽 조산면의 五岳과 계류가의 散植, 半月池 남쪽 정자변의 立石形의 疊植, 물개가 물속으로 뛰어 드는 듯한 형상의 垂植등 다섯가지 기법이 주로 쓰였다. 이들중 후르는 물가에는 散植기법이 쓰이고 조산면에 군식기법이 주로 쓰였는데 군식의 경우 세개의 돌을 기본형으로하여 主, 從, 添의 위계성을 살리면서 부등변삼각형을 이루게 하고 전면의 좌우에 前石을 붙여 심어 3:5:7의 무리를 이루게 하였다.

뜰안의 중심경물로서 기능을 겸한 후원의 선돌과 主庭의 거북머리돌의 경우, 기세를 세워 한국이 위치한 서쪽을 향하게 하여 방향성을 지표하였다. 이들 수석기법의 목적과 특징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보면, 후원의 제단석과 선돌에서와 같은 신앙수석, 主庭의 龜形石山, 곰용석산, 음양석과 같은 상징수석, 정호석, 반경석, 관망석, 난간석과 같은 기능수석등으로 분류할 수 있어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로 이어진 한민족의 수석문화를 재현할 수 있었다.

3) 水景

수경은 전통정원의 중심경관으로 물의 변신성과 투영성을 응용하여 땅에서 솟은물이 흐르다

떨어지고 웅덩이에 고이는 자연계의 생태성을 살려 다양한 산수경관을 조성하였다. 後苑에서 主庭을 거쳐 前庭에 이르는 동서간의 主軸을 관통하는 水景을 조성하여 가름된 정원공간을 이어주면서 흐르는 계류와 낙수경외에도 거울과 같이 맑게 고인 못을 조성하여 한민족이 꾸민 수경의 변천상을 볼 수 있게 하였다.

후원의 井자형 우물의 꾸밈새는 물이 솟아오르는 지하 구조를 원형으로 하고, 물이 고였다가 떨어지는 지상부의 형상은 사각으로 꾸몄다. 솟아오르는 물을 양으로 상징하여 둥근형으로 꾸미고 빛과 교차도면서 땅위로 흐른 물은 음으로 해석하여 우물의 구조도 음양의 조화에 맞게 하였다.

三山の 중북에서 솟은 물은 후원의 제단석과 선돌 앞 공간에서 골구형의 계류를 이루고 1.2m 높이의 3단의 폭포를 거쳐 타원형의 천지에 고이게 하였다. 후원의 곡수형계류는 폭이 0.5~0.7m로서 용의 형상과 같게 꾸며 용상곡수거라 부르고 0.3~0.5m높이의 정원석을 굴곡부외측에 2개, 내측에 1개를 심어 호안석을 겸한 낮은 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보이게 하였다.

3단의 폭포는 높이 0.3~0.5m 폭 1.2m 내외의凹凸이 많은 영상석을 제사이 되게 이어 폭포의 동체석을 이루게 하고 그 좌우의 협석은 동체석과 비슷한 질감의 돌을 골라 첩석하여 호안벽을 조성하였다. 폭포의 물을 받아 고이게 하는 천지의 규모는 약 30m²로서 길이 25~30cm, 폭 15~18cm, 두께 5~7cm크기의 판석을 쌓아 0.5m 높이의 타원형 호안을 쌓았다.

천지에 고인 물이 넘쳐 후원과 주정과의 경계를 이룬 반경석 사이로 흘러 낮은 소폭포를 거쳐 주정의 반월지에 고였다. 다시 넘쳐 계류를 이루어 두곳의 소폭포를 지나 담장밖 전정의 방지로 흘러든다. 주정의 半月池의 규모는 약 70m²로서 남쪽대안의 돌출면이 반월형이 섬모양으로 꾸며져 그곳에 육각형의 관자정이 세워졌다. 반월지 안에는 平石形의 石島(높이 0.3m, 길이 0.9m)가 못 동쪽에 떠 보이고 호안석사이에는 석창포와 갯버들을 심어 계천가의 전원풍

경이 연출되게 하였다.

전정에 꾸민 방지의 규모는 8×6m이고 중도는 직경 2.1m의 둥근섬으로 후원의 천지에서 사용된 판석으로 호안을 쌓고 그 섬안에 높이 0.5~0.9m, 폭 0.3~0.5cm크기의 三峰石을 심어 삼신산을 상징하고 돌사이에 석창포를 심었다. 방지의 호안면은 길이 0.3m, 폭 0.2m의 벽돌형의 돌을 0.7m높이로 쌓고 못의 남쪽에 수양버들을 심어 울동미를 살리고 동쪽에 영산홍 한그루를 심어 물에 투영된 春花景의 실상과 허상을 함께 감상할 수 있게 꾸몄다.

(4) 配植景

관자정에 심은 정원수의 선정은 한국의 중부지방에서 자란 향토식물 중 일본에서 구할 수 있는 수종을 대상으로 하여 교목 21종, 관목 19종, 지피식물 16종, 덩굴식물 2종, 수생식물 3종이 선정되었다.

配植기법에 있어서는 가름된 공간의 특성화와 함께 한민족의 사상성과 시원성 및 지표성(한국성)을 상징화하면서 식물의 생태성과 五感を 통한 쾌적성, 내외공간과의 연계적인 조화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첫째, 가름된 空間의 特性化

전체 공간의 머리에 해당되는 후원의 신원에는 신목인 사스레피나무와 잔가지가 많은 소사나무와 느티나무로 울창한 숲으로 에워싸이게 하여 선사시대의 숲과 돌과 물의 복합적인 신비경이 연출되게 하였다. 몸체인 주정은 조선시대의 양반가를 기준하여 당시의 정원풍경을 재현할 수 있게 담장가에 감나무, 모과나무, 살구나무와 같은 과수를 배식하고, 매, 난, 국, 죽의 사우단을 조성하였으며, 건물가에 석류나무와 파초를 심어 선비들의 취향이 반영되게 하였다. 후정의 화계에는 하단에 도라지, 작약, 접시꽃, 더덕과 같은 약용 및 식용 식물을 심고, 중단에 앵두, 해당화, 황매, 영산홍, 모란, 상단에는 철쭉, 화살나무, 오죽 등을 심었다.

둘째, 思想性的의 象徴化

한민족의 고유 사상인 음양 및 삼재와 풍수 및 신선사상을 배식기법에 응용하였다. 정원 식물의 수형과 꽃, 열매, 잎, 줄기 등의 색상에 의해 음양성을 조절하고, 주수종의 배식형에 있어서 주, 종, 침 등의 三脚에 의한 부등변 삼각형의 입체경을 꾸며 심경미를 추구하였다. 한편, 서북쪽의 방풍 차광, 동남면의 채광을 알맞게 조절하기 위해 수종의 선택고 식재위치를 조정하였으며, 전정에는 주변의 기를 모아 가세의 번영을 위해 회화나무 세그루를 식재 하였다. 또한 정원과 주변 숲 사이에 살구나무, 복숭아 나무, 배롱나무, 노각나무 등의 화목류를 심어 무릉도원을 꾸미고, 소나무, 대나무, 란을 심어 신선풍의 선경을 이루게 하였다.

셋째, 들과 들의 始源性의 暗示

후원에 꾸민 거석문화 중심의 신원은 숲과 돌과 물의 복합적인 공원의 효시이며 후정에 조성한 화계에 심은 약용 및 식용식물은 5천3백년전 들의 시작인 圃와 園의 재현으로 조선시대의 민가정원을 중심으로 선사시대의 공원과 정원의 시원성을 상징화 할 수 있게 수종을 선정하여 배식하였다.

넷째, 生態性에 의한 適地適樹

정원식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 내음성과 내건성, 내습성 등을 고려하여 적지 적수가 되게 배식하였다.

다섯째, 韓國性의 指標

관자정 입구인 전정에 무궁화를 심어 한국의 국화를 소개하고, 경사면에 흰철쭉을 군식하여 백의 민족의 기상을 지표화 하였다.

여섯째, 五感에 의한 快適性 追求

정원식물의 선정에서 형상, 색, 향, 맛을 고려하고 곤충이나 조류를 유치하여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므로써 오감에 의한 쾌적성을 높일 수 있게 배식하였다.

일곱째, 外部空間의 調和性

정원공간과 주변의 자연림과의 경계가 담장으로 가름되어 인공경관과 자연경관과의 선적인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담장 안뜰에 자연림에서 볼 수 있는 수종을 심고, 자연림 속에는 정

원에 있는 수종을 심어 상호 보완적인 조화성을 높일 수 있게 배식을 조절하였다.

IX. 要 約

1. 由來 및 經過

1990년 일본의 가나가와현과 한국의 경기도와의 자매결연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교류사업으로 조성된 관자정을 요코하마시 쓰루미구에 있는 현립공원인 미쓰이게(三池)공원 안에 있으며, 넓이는 5천여 m²에 이른다.

관자정의 설계는 일본조원학회에 의뢰되어 1991~1993년 3월까지 戶田風景計劃에서 주관하고 총괄자문을 본인이 맡아 시행되었으며, 1993년 6월에 공사가 착공되고, 1994년 5월에 완공되어 6월 4일 성대한 개원식이 거행되었다.

관자정의 꾸밈새에서 볼 때 정원문화의 시원성과 변천상의 주경관이 다양하게 연출되어 五感を 통해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고, 만물이共生할 수 있는 생물학적 예술공간으로서의 특징을 갖춘 한민족 고유의 정원공간으로 평가되어 일본조원학회와 조경관련 단체에서의 개원 기념특강이 두차례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무더운 여름철임에도 개원 1개월만에 5만여명이 찾아와 관자정을 감상하였다.

2. 基本構想

관자정의 기본구상은 일본조원하고회의 자문위원회에서 작성되었는데, 1안이 궁궐정원이고, 2안은 촌락 풍경과 개인정원의 복합경관이었으며, 3안은 조선시대 양반가의 정원이었다.

본인이 총괄 자문역을 맡게 되면서, 일본측의 3안인 조선시대의 민가정원을 기본으로 삼아, 마을앞 동산의 신앙독지 공간과 동양문화의 시원을 이룬 음양 및 삼재사상을 상징화한 거석문화 위주의 神苑을 추가한 수정안이 제시되어 실시설계가 이루어졌다.

3. 立地 및 思想的 背景

관자정의 꾸밈새에서 입지 및 사상적 배경을 요약하면,

첫째, 관자정이 조성된 三池公園의 입지여건 중 자형과 식생상태가 한국과 비슷하다. 이곳은 뒷산이 높고, 남쪽산이 낮아 채광과 통풍이 알맞게 조절되고, 산으로 에워싸여져 아늑한 분위기가 유지되는 풍수상의 명당이다.

둘째, 사상적 배경은 음양 및 삼재사상을 응용하여, 주정공간을 음성화(地, □, 二)하고, 머리에 해당하는 후원을 양성화(川, ○, 一)하였으며 前庭은 중성화(人, △, 三)하여 전체 정원공간의 유기적인 三次元의 균형이 유지되게 하였다.

또한 빛과 물과 바람과 땅과의 환경과학인 풍수사상에 따라 주거공간과 정원 공간을 알맞게 가름하고, 수경 조성에 있어서도 지세와 방위에 맞추어 솟고, 흐르고, 떨어지고, 고이는 다양한 수경이 가장 쾌적한 상태에서 연출되게 하였다.

끝으로 신선사상의 응용에 있어서는 전망이 좋은 후원의 경사면에 하늘을 받드는 매개적인 제단석 중심의 神苑을 꾸미고, 산록부에 조성한 폭포와 天池가에 축대정자를 세워 풍류적인 仙의 공간을 꾸몄으며, 주위의 숲 사이에는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배롱나무, 인동덩굴등을 심어 무릉도원 속에서 五感を 통한 영적인 신비경을 감상할 수 있게 하였다.

4. 造苑原理

관자정을 한민족 고유의 생물적 예술공간으로 꾸미기 위해 자연경관을 原景으로 삼아 유기체적인 소우주를 목표로 하여 우주의 섭리와 생물사회의 공생원리를 최대한 응용하였다. 주로 응용된 생태적 원리는 다층사회에서 공생을 위한 主와 從의 위계성을 위시하여, 음양의 균형유지, 自力과 他力の 평형성, 分과 聚, 虛와 實의 조정, 소재간의 기세의 조절 등이었다.

5. 景觀의 構成

관자정 조성상의 모티브는 완만한 야산형의 산수경관이었으며, 목표는 조선시대의 민가정원과 마을 앞 동산 외에 정원문화의 시원성을 상징한 神苑의 조성이었다.

따라서 정원의 구성요소는 주어진 입지경관을 모체로 하고, 돌과 물과, 식물을 주 소재로하여 축조물, 석조물, 접경물 등의 인공경관이 가미되어 있다.

뜰에 쓰인 돌은 그 형상과 기능에 따라 제단석, 선돌, 고인돌, 磐境石, 돌다리, 난간석, 디딤돌, 음양석, 龜形石山, 景石, 관망석 등으로 구분된다.

물의 경우 솟은 물이 계류를 이루고, 지형에 따른 낙수경이 고이는 못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수경을 이루었는데, 못은 두곳이며 폭포는 후원에 두곳, 주정에는 세곳에 축조되었다. 관자정 조성에 쓰인 식물의 종류는 총 61종으로 교목이 21종, 관목이 19종, 지피식물이 16종, 수생식물 3종, 寧쿨식물 2종 이었다.

축조물에는 주건물인 별당과 두곳의 문과 정자, 담장 3단의 화계, 장독대 외에 정원공간으로의 진입용 돌계단 등이며 석등, 석지, 석조, 석함, 석수, 석비, 井자형, 움, ㄱ 하마대, 댓돌 해태석 등의 석조물과의 편액, 주련, 풍경 등의 접경물로 꾸며져 있다.

6. 땅가름

관자정 조성상의 기준척도는 대문의 一間을 기준삼아 主軸이 서에서 동으로 설정되고, 정원공간의 기능에 따라 前苑, 前庭, 主庭, 後庭, 後苑으로 가름되었다. 중심공간인 主庭의 북쪽 산록에 축조된 통우제의 누마루를 기준으로 북에서 남쪽으로 부축선이 설정되어 남쪽 뜰에 산수경관형의 주경이 조성되고, 통우제 뒷경사면에 花階形의 후정이 조성되었다.

주거공간인 主庭공간은 담장으로 에워싸여져

아늑한 분위기가 유지되게 하면서 大門과 後門에 의해 前苑에서 前庭과 主庭을 거쳐, 後苑으로 이어지게 꾸며져 가름(分)과 모임(聚)의 생태적 원리가 응용되었다.

7. 意匠技法

관자정 조성상의 주된 기법으로는 造山, 岩景, 水景, 配植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주위가 낮은 구릉으로 에워싸여 있어 造山の 필요성은 적었으나, 주정이 평면확산화된 단조로움을 덜고, 주위 경사면을 뜯 안으로 연결하므로써, 들과 뜯의 조화성을 높이는 동시에, 뜯안에 조성한 岩景과 水景이 돋보이게 하는 목적에서 낮은 산을 조성하였다.

주정의 동쪽 경사면에 三山을 이루어 신원인 후원의 위계성과 전망성을 높였으며, 통우제에서 바라도 보인 남쪽 半月池가에 五岳을 조성하여 岩景조성상의 기반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관자정에서의 岩景은 화계 앞의 景石이나, 후원의 선돌, 반월지 안의 庭湖石은 單植처리를 하였으며, 주정의 남쪽 조산면의 五岳과 계류가 완경사지에는 散植하였고, 포포와 반월지 북쪽 호안부의 수평적인 群植, 반월지 남쪽 정자쪽의 입체적인 疊植과 물가의 垂植 등 5가지 수석기법이 쓰였다.

散植과 群植의 경우 세계의 돌을 기본형으로 하여, 主·從·添의 위계성을 살리고, 주된 정원석의 경우 기세를 세우면서 한국이 위치한 서쪽을 향하게하여 望郷性을 살리도록 하였다.

이들 정원석의 수석 기법을 유형별로 보면, 후원의 제단석과 선돌과 같은 신앙수석, 龜形石山, 공룡석산, 음양석 등의 상징수석, 난간석, 정호석, 반경석(磐景石), 배관석과 같은 기능수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수경은 전통정원의 중심景物로서 물의 變身性과 投影性을 활용하여 땅속에서 솟은 물이 흐르고 떨어지며 고은 자연계의 생태성을 응용하였다.

후원의 井자형 우물에서 발원되어 龍象曲水渠

와 두곳의 폭포를 거쳐 天池에고인 물이 주정의 반월지를 이루고, 세곳의 소폭포를 지나 전정의 方池로 흘러든다.

넷째, 配植에 쓰인 식물은 총 61종으로 한국의 향토수종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생태성은 물론, 형과 색, 향기등이 음양성에 맞추어 배식하였다. 화계에는 선사시대의 후정에 심는 식용 및 약용식물을 주로 사용하고, 건물 가까이에는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애용한 과초와 석류나무를 위시하여, 매, 난, 국, 죽의 사군자 등 풍류적인 수종을 사용하였다. 주정에는 감나무, 모과나무, 복숭아나무, 매화나무, 살구나무, 때죽나무, 자귀나무, 인동덩굴과 같은 과실수와 화목을 심어 전원적인 정취와 함께 미각과 후각적 효과도 고려하여 五感を 통해 느낄 수 있는 생물적인 경관을 조성 하였으며, 후원에는 고산성의 자작나무, 노각나무, 싸리, 좁작살나무와 神水인 사스레피나무를 제단석의 우측에 심었다.

8. 庭苑名稱

정원안의 주 건물인 별당과 주정의 정자명은 경기도의 요청에 의해 본인이 명명하였는데 별당은 이웃과 정을 나눈다는 뜻에서 通友齋라 하였으며, 정자명은 자연을 스승삼아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뜻에서 觀自亭이라 하였다. 일본측에 의해 코리아 정원으로 불리운 정원명도 자연의 섭리를 배우는 생물적인 예술공간이자우주만물과의 공생의 뜰이라는 뜻에서 觀自庭이라 명명하였다. 정원명비는 한국청년회의소의 협찬으로 삼재사상을 도상화 하여 한국에서 제작하여 지난 7월 19일에 제막식이 거행된 바 있다.

9. 맺는말

일본 요코하마에 조성된 관자정은 동양문화의 시원을 이룬 한민족의 고유사상인 음양 및 삼재사상과 풍수 및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자연계의 생태적 원리를 응용한 생물적 예술공간이며, 정원명에 암시된 바와 같이 자연의 섭리를

터득하고 배우는 공간이자 스스로를 돌아다 보면서 五感を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四次元의 영성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1990년 부터 3년 8개월에 걸쳐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고비가 많았으나 참고 넘겼기에 오늘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일본땅에 한국 정원을 계획, 시공하면서 일본의 법규와 제도상의 장벽을 넘어 건축, 토목, 설비, 미술 등 여러분야를 총괄 지휘하여 박물관

적인 정원문화공간을 창출할 수 있었으며, 환경 조정자로서의 역할 등 조경가의 3대임을 수행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었다는데에 자부심을 갖게 되고,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보급될 생물학적 예술공간의 시범사례로서 전 세계에 파급되어 한민족의 뛰어난 문화의 힘으로 세계평화가 이룩되고 지구 환경이 밝은 미래가 열리게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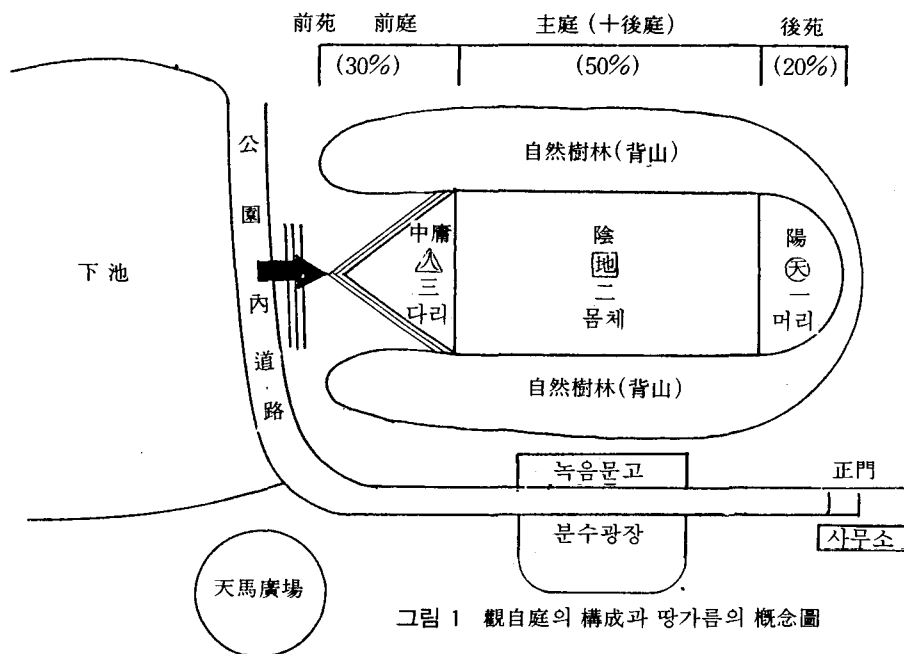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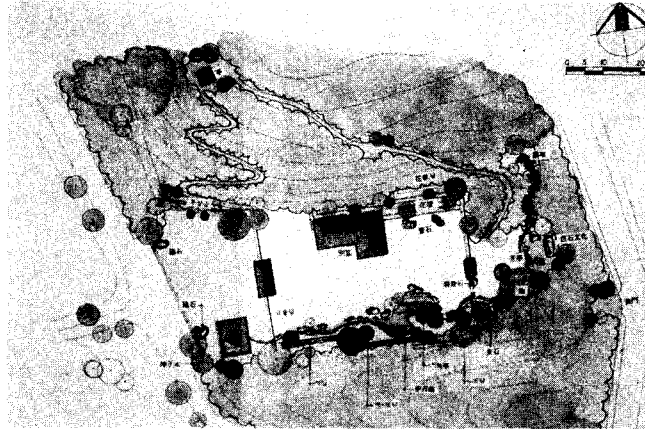


그림 1 觀自庭의 構成과 땅가름의 概念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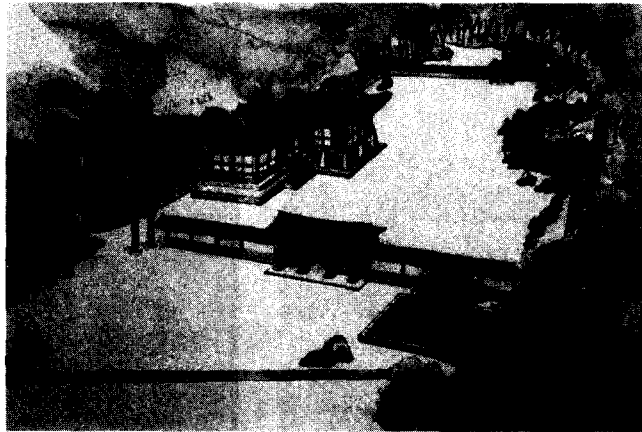
參考文獻

1.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平城宮整備調査報告書 I, 1974
2. 田村剛譯, 作庭記, 東京:相謀書房, 1984
3. 野本寬一, 石と日本人, 東京:樹石社, 1982
4. 森 蘊, 平安時代の庭園 研究, 桑谷文星堂, 1945
5. 村山智順, 朝鮮の風水, 서울:學文閣 1977
6. Min. K. H., Tradition Korean Rock Garden,

- Korean culture Vol.8 No.1, Korean culture service LosAngeles, 1987
7. 閔庚玟, 韓國庭苑文化 I 始原과 變遷論, 서울:藝耕産業社, 1991
8. 閔庚玟, 韓國庭苑文化 II 意匠 및 技法論, 서울:藝耕産業社, 1991
9. 齊藤榮一譯, 形の全自然學, 東京:工作社 1985
10. 林業研究院, 韓國樹木圖鑑, 1988
11. 藤本 辛外, 身體と宇宙, 亞紅書房 1992



① 觀自庭의 基本構想案(평면도) 1991. 12



② 觀自庭의 基本構想案(조감도) 199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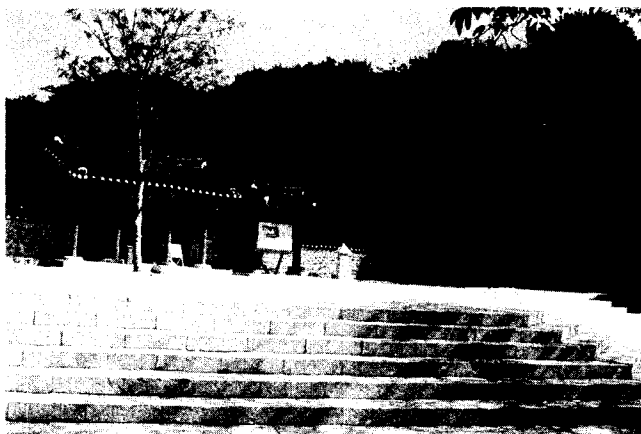
③ 觀自庭의 工事光景 199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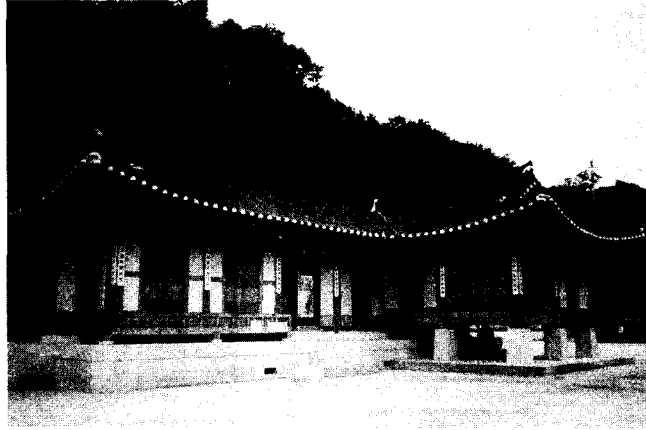
④ 觀自庭 後庭의 神苑工事光景 199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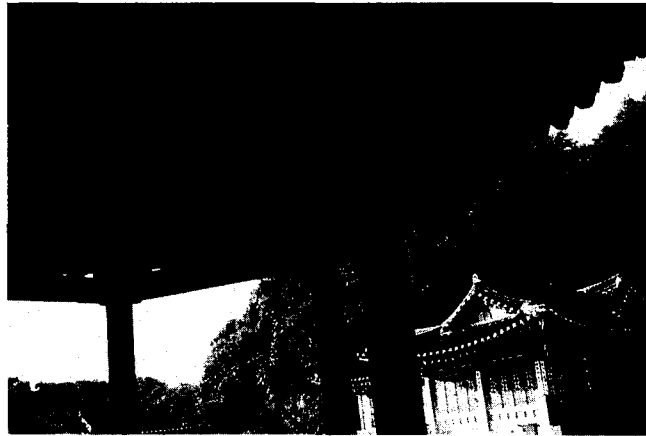
⑤ 觀自庭 前庭의 장승 솟대 199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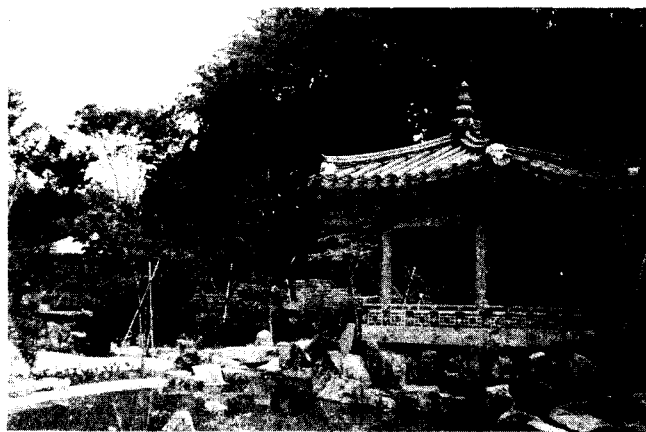
⑥ 觀自庭 前庭(方池円島) 1994.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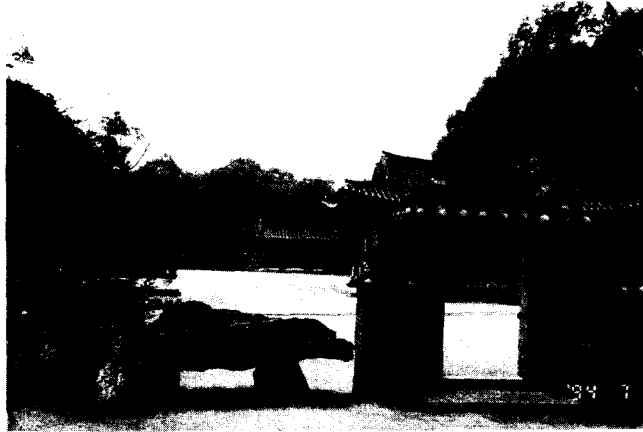
⑦ 觀自庭의 別堂 건물인 通友齋 1994. 5



⑧ 觀自庭 主庭의 觀自亭에서 본 別堂 199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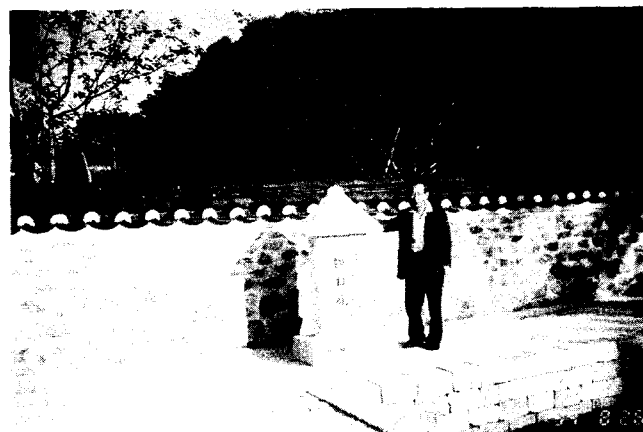
⑨ 觀自庭 主庭의 半月池와 觀自亭 1991. 5



⑩ 觀自庭 後庭의 50內에서 본 正內



⑪ 觀自庭 後庭의 龍家四水와 竈대정자 1994. 5



⑫ 觀自庭의 前庭에 세운 觀自庭碑石 1994. 8